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

-연재를 시작하며

“자주 만나는 경전 주제로 쓸 터”

사람이 늙으면 시간보내기가 걱정이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도 어 연 80고개를 넘고 보니, 찾아오는 이도 눈에 띄게 즐었고 찾아갈 데도 마땅치 않아 그저 옛일을 회상하거나 공연한 망 상이나 피우게 된다.

그러던 중에 현대불교신문사로부터 “우리 독자들을 위해 글이나 한 편 써 주 시기 바랍니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러나 그게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 가. 읽어서 이익(有益)하게 쓰자니 식견 이 부족하고, 보아서 재미있게 쓰자니 기교가 없다.

모로 신(神) 선(仙) 불(佛) 왕(王) 대자연 (大自然) 등의 수식어(修飾語)로 사용되 기도 한다.

경(經)이란, 원래 배(배)를 팔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날(날)을 의미한다. 날이란 일정깊이의 폭넓은 실, 수직 개를 평면 으로 베를 늘여놓고 홀수와 짝수로 나 누어 번갈아 상하로 바뀌면서 사이를 떠 우면 그 사이를 복(復)이 드나들면서 한 올, 한 올 짜서 베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베에 날이 있음으로써 씨울이나 수 (繭) 문양(紋樣) 등이 흩어지지 않고 제자

經은 성현의 말씀 典은 서적을 의미 바른 삶 가르치는 공개된 궤범 답야

그래서 생각한 것이 파적(破寂)의 일 환(一環)으로, 내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경전(經典)을 주제(主題)로 ‘경전이야기’ 를 시간이 허용되는 한 써볼까 한다.

우선(于先) 경전이란, 글자 그대로 풀 이한다면 경(經)은 성현(聖賢)의 말씀이 담긴 책이란 뜻이다. 또 전(典)이란 전적 (典籍) 즉 서적군(書籍群)이라는 뜻으로 서 이를 합치면 “성현의 말씀이 담긴 서 적(書籍)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성(聖)이 다 현(賢)이다 하는 칭호(稱號)를 붙였을 까. 통설(通說)로는 ‘정의(正義)를 위해 고절(苦節)을 감내(堪耐)해 낸 이를 현이라 하고,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복지구현 (福智俱現)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를 성인이라 한다’고 하는 글을 본 적 이 있다.

그들의 말씀은 지역이나 인종의 이해 차별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여 마 치 공기와도 같고, 햇빛과도 같으며, 신 비롭기가 신(神)의 화현(化現) 같기도 하

리를 지킬 수 있듯이, 성현들의 언동(言 動)도 그와 같이 공평무사하여 바르게살 기를 희망하는 모든 인류의 항상 공개되 어있는 궤범(軌範)이라는 것이다. 그래 서 그들의 말씀을 적은 책은 일반적인 서적이 아니라 경이라 일컫어는 것이다.

그 밖에도 간혹 세간사(世間事)를 이 야기했으되 그 깊이가 신묘한 경지에 이른 것을 경이라 칭하였으니, 시경(詩 經)이나 서경(書經) 등이 그것이다. 때로 는 역시 세간사(世間事)를 논하였으되 그 경지가 심오한 것에는 역시 경이란 이름을 붙였으니, 이는 그 내용이 살아 가는 데 크게 이로움을 주기 때문일 것 이다.

더구나 요즘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들이 자신들의 교리서(敎理書)를 경이라 부르면서 그 위세를 크게 떨치고 있으 니, 자신들이 신봉하는 성인들이 동양의 성인이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일 것이다. <계속>

불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깨달음이 깊어지면 너의 전 존재가 춤을 추리라”

譯者,
책을 말한다



춤추는 꿈

아다산티 지음 | 유영일 옮김

역자 유영일

소설가를 꿈꾸었으나 흘러넘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면의 가난함을 절감하고, 정신세계의 탐험 에 몸과 마음을 담그기 시작했다. 온갖 오해와 편 견으로 물든 자신을 발견하고 몇 차례의 큰 울음과 함께 내면의 신성한 빛을 체험한 이후, 빛의 확장을 위한 수행과 글쓰기를 인생의 가장 큰 숙제로 여기고 산다. 옮긴 책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마음의 습관) <내 안의 나>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나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

깨달은 자의 으뜸가는 자질은 무엇일까? 아마도 대자유림일 것이다. 깨닫지 못한 범인(凡人)은 가운 자가 없어도 스스로 욕망의 성에 갇혀 산다. 내 성을 더 높여, 내 창고를 더 가득 채울수록 내 삶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습관적인 믿음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 자유의 숨통을 조이기 일쑤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갖가지 의무와 내일을 위한 시간표에 쫓기다 보면 자유와 풍요가 함께 동행 하는 삶은 늘 요원하기만 하다. “...하게 되면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조건들은 늘 저만치에서 모습을 달리 하며 유혹을 계속하고, 끝날 줄 모르는 운명의 장난에 지치다 보면 불현듯 거울 앞에 서서 진정한 나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고 싶어진다.

구도 여정은 삶에 대한 무상과 덧없음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출발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원소들이 임시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 집착 할 거리가 못 된다는 불교적 인생관은 양자물리학의 물질에 대한 본질 규명으로 더욱 확고한 토대를 마련 해 가고 있는 중이다.

‘뭇 비어 있다’는 자각은 구도 행각의 첫 단추에 지나 지 않는다. 무상하지? 덧없지? 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 임으로써 출발하는 구도 행각은, 삶에 대한 절대긍정과

설법에 감동을 받아 본성의 깨어남을 체험하는 이 들 이 많다.

그는 온전한 깨달음은 머리와 가슴과 아랫배의 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머리로 선연하게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전체가 춤을 추려 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깨달음이 덜 익은 것이라고 말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안에서, 밖에서, 너머에서 존재하는 광대한 고요함과 사랑의 침묵에 자신을 한없이 열어놓는 대자유림이 곧 깨달음이며, 우리 인 생이란 이러한 ‘공(空)이 춤추는 것’임을 여러 각도 에서 심도 있게 보여준다.

본성에서 깨어난 그에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체 험되었던 만물의 모든 경계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나와 너의 상대적인 세계가 사라지고, 절대 ‘하나’ 만이 남게 된다. 모양과 빛깔이 저마다 달라서 흥천 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보이는 세상과 우주가 하나로 보인다는 것은, 가리고 분별하지 않을 것이 아무 것 도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 그 상태에 서는 실령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입을 여는 순간 천리만리 어긋나 버린다. 진리라는 언어 또한 진리가 아닌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눈푸른 선승의 세계는 ‘가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저절로 명

쉬운 언어로 설파한 대자유로 가는 길 “상대적 세계 사라지고 절대 하나 돼야”

대자유림에서 막을 내리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깨 달음의 여정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것이다.

깨달은 자가 누리는 대자유림은, 구경하는 것만으 로도 충분히 재미가 넘친다. 깨달은 인생은 막힌 데 가 없이 훤히 훑혀 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과 세계와 우주를 향해 열린 가슴으로 사랑을 노래하 는 성자들의 삶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는 자극제 가 되고 촉매가 된다.

열아홉 살에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이 후 15년 동안 선(禪) 수행에 매진하던 저자는 새벽을 깨우는 새소리를 듣고 새와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 지 않다는 통렬한 자각으로 깨달음의 첫 수확을 거두 었다. 이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안과 밖과 너머에 있 는 광대한 고요함과 사랑의 침묵이 곧 수많은 선각자 들이 말하는 공(空)의 실상임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이를 살며 사랑하며 가르쳐 왔다. 스승의 요청에 따 라 96년 이후부터 대중을 만나 깨달음의 세계를 가리 키 보임으로써 21세기 지구촌의 주목할 만한 영적 교 사로 떠올랐다.

투명에 가까운 푸른 눈동자가 마음속 알음알이를 풀어 헤치도록 만든다는 그의 제자들 중에는, 삶의 실상과 우주적 진리를 가리켜 보이는 그의 알기 쉬운

백하리라’ 라고 했던 3도 승찬의 신심명 첫머리와 겹 쳐지고, ‘지난해 가난은 송곳 꽃을 땅이라도 있었건 만 올해의 가난은 송곳마저 없구나’라고 노래한 향 업 선사의 계승과도 황금의 맥으로 통하게 된다.

진정한 스승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자기를 깨닫도록(Self-realization)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여행의 도구를 제공해 주며, 내적인 흐름을 자 극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극의 진실이 우리 안에서 꽃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결국 모든 알음알 이를 벗어나 텅 빈 손으로, 지향하는 바조차 없이 무 장해제되어야 한다. 아다산티는 정확히 그 길을 가리 키 보여준다. 눈 밝은 선사들의 언어가 그런 것처럼, 그의 언어들은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과 감정 적인 반작용을 찢어발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의 세계관을 뒤집어엎고 우리를 뒤흔들며 마음의 기 만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열림은 우리에게 생생하 고 활력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세롭고도 신선 한 삶의 방식을 제시해준다.

이 책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또한, 광대한 근원의 열림 안에서 모두를 깨우기 위한 한 서양인 선사의 춤이다. 그의 공(空)이 추는 춤이다.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생명 에너지를
균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20년전통
조상의 알곡을 이어 담은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 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차용·피부미용)
기본 배움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전등록 전5권 / 계통 무문관 / 계통 범암록
- 전부경 / 계통 금강경 / 계통 신심명 / 계통 중도가
- 반야심경 / 계통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완단고기 전5권 / 계통 범용선사 심명
- 선기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앞물에 국화꽃 곱고 복사에 찻는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물체로세상을물삼아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